

## 네일샵의 젤 네일 시술시 문제점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

유태순<sup>†</sup>, 오미진

도도아카데미

(rtss6194@hanmail.net<sup>†</sup>)

네일샵의 분포도는 미용실보다 현저히 적은 편이지만 최근 네일샵의 비중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. 네일 자격증은 2014년도부터 실행이 되어 네일샵을 오픈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. 현재 네일샵에서 주로 하는 시술은 크게 큐티클 케어, 젤 네일, 젤 네일아트, 속 오프 시술로 분류할 수 있다. 그 중에서 젤 네일이란 젤을 손톱표면에 발라 램프기를 이용해 큐어링을 하는 과정으로 램프기안에서 젤이 굳어 시술 후 1개월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술이고 시술 직후 바로 손사용이 간편하여 네일샵을 방문하는 90%이상의 고객이 젤네일 시술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. 젤 시술 후 1개월이 지나면 속 오프 과정에서 또다시 손톱의 손상과 피부표면의 손상이 일어난다.

네일 샵의 시술 중에 아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종목은 젤 네일과 속 오프이다. 그러므로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시술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. 네일샵의 시술시 문제점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, 첫 번째는 젤 시술 시 사용하는 제품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시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프팅이 되지 않는 제품을 선호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손톱모양과 표면에 파일링으로 인한 손톱 손상을 첫 번째 문제점이라 할 수 있고, 두 번째 문제는 약 30일 후 젤 네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술 방식이다.